

##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 :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정주신 한밭대학교

### 논문 요약

이 글은 탈북자 입국과 동시에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이에는 샬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장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 입국자의 전체 숫자,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 재북 지역별 입국, 재북 학력별 입국, 재북 직업별 입국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시기별 탈북자들의 국내 초기 정착과정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국내 거주지별 분포, 사회적응도,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매혹장점 모델을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국내 입국, 초기 정착과정, 탈북자 성향, 매혹장점 모델, 하나원

\* 이 글은 2017년 5월 26일(금)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과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I. 서론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2020년 3월 현재, 전체 3만3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은 생사를 초월해서 탈북하고 주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멀리는 태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결국에는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천여 명 혹은 2천여 명을 상회하는 탈북자 귀국으로 전체 탈북인원을 급격히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동포가 필사적으로 대거 북한을 탈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대(大)기근을 전후해서이다. 불과 25여년 만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3만3천여 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광폭적인 탈북행렬이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북한의 무분별한 독재체제나 유일주체사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계,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생존전략, 체제의 팍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정주신 2011, 20-25).

다시 말해서 북한의 독재체제나 유일주체사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계는 북한체제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 세습과정에서의 독재체제나 공산이데올로기로 북한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었고 북한주민의 생존전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현실과 미국으로부터의 북핵문제로 국제적 경제제재를 당하는 작금의 국제사회의 고립된 현실을 직면하면서,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에 충성하기보다는 체제이탈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찾는 경향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체제의 팍박을 피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장마당<sup>1)</sup>을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함은 눈뜨고 보지 못할 북한의 처참한 실상이어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

---

1) 북한주민의 80%가 장마당 등 시장에 의존한 것 자체가 북한의 경제부문의 초보적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으로의 입국을 감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한국행은 개인의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착은 물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은 북한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이 국가의 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보호 중심이 아닌 탈북자 스스로 일에 대한 욕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자립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탈북자의 진정한 정착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탈북자 입국과 초기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착정책은 정착금지원제도,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 등 국가로부터 정착과 관련한 지원금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손수 독립적으로 취업(일자리)을 통해 당당한 한국인으로 거듭 성장하고 완전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과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샬리 호그세드의 7가지 매혹 장점 모델을 사용하여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입국과정과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탈북자의 한국행이 분단 이후 70년 넘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입국하고 정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가의 문제도 결국은 한반도 통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북자가 한국행 입국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금이나 장려금 및 가산금에 머물지 말고 독립적인 취업을 통해 경제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원래 한국인과 다른 이방인이나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고 탈북인이 새로운 한국인으로 자아준거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와 관점을 찾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탈북자들의 입국과정을 김일성 체제시기(1945.10~1994.7)-김정

## 8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3호 (2020)

일 체제시기(1994.7~2011.12)-김정은 체제시기(2011.12~현재) 등 3대 세습과정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성향 분석에 유의하리라 여겨진다. 예컨대 김일성은 1912년 4월생으로 1945년 10월 소련의 지명으로 대중앞에 나타나면서 북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1994년 7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근 49년 통치를 하였다. 그 후계자로 김정일이 1990년 5월 김일성 후계자로 일찌감치 나섰으며 이후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을 전후해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승하면서 북한 권력자가 되었다. 김정일 정권이 2009년 자신의 후계자 김정은 내정 단계, 2010~2011년 후계자 공식화 단계를 거쳤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은 자신이 2012년 초기에 공식 권력승계를 완료해 2020년 현재 집권 8년차가 되었다. 이에 반해서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탈북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대 한국 정권담당자의 탈북자 정책과 연계시켜 살펴볼 수 있다. 남북한 정권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으로 탈북자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탈북자들이 한국에서의 정착이 탈북자 성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는 분단 이후 민간 권위주의체제 10년(1948.8~1960.4)과 군부 권위주의체제 30여년(1961.5~1993.2) 집권기간을 끝내고 군부종식 이후 민주화시기를 맞으면서 보수-진보 체제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해왔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모색

그동안의 탈북자 성향 분석과 연관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탈북자의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연구는 탈북여성과 남성의 적응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 성향 등의 가치관의 변화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가치관이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 효과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1995

년 이후 입국한 18세 이상 탈북자 195명(남성 84명, 여성 111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북한에 있었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 성향을 더 높게 가지고 있었으나 남한에 온 이후에는 성별 차이가 수렴되어 가족주의 점수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문화적 적응과 만족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가치관 점수를 통제할 때 사라졌으며, 이는 가치관이 성별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적응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더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진미정 2008, 139).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탈냉전과 대량탈북시대에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위치의 한계와 가능성.” 연구는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 타자(他者)임을 밝히고, 이들의 존재가 남북의 분단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과 북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면서(김성경 2014, 39), 짐멜의 ‘이방인’과 로버트 파크의 ‘경계인(the Marginal Man)’의 개념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탈북자의 사회적 의미와 정체성을 조망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의 탈북자는 정착국인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의 모국인 북한에도 초국적 연결고리를 통해 적잖은 변화 추동의 잠재력을 내포한 중요한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김성경 2014, 45).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연구는 탈북자 대량 발생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고,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파악하되, 현재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탈북 문제에 대해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김용현 2005).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흐름도]

국내이송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국내입국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보호결정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 나 원 의 정착준비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 훈련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 참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지역적응센터(전국25곳)지정·운영 -정착도우미제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82명)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2020; 통일부 통일백서 2020, 146)

그러나 이들의 연구들은 <표 1>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이 입국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국내이송-국내입국-거주지 전입 등 절차적 과정이었지 그들의 성향 분석이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탈북자의 위치를 그대로 묶어주거나 재생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첫째, 탈북여성과 남성의 적응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 역할 성향 등의 가치관의 변화 운운하는 것은 탈북자들이 정상적인 북한생활을 해오던 사람도 아니고 가족다운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데서 오는 연구 분석의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탈북자는 정착국인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의 모국인 북한에도 초국적 연결고리를 통해 적잖은 변화 추동의 잠재력을 내포한 중요한 존재로서의 연구도 불특정 탈북자들이 한국에서의 영향력도 미미할뿐더러 북한에 적잖은 영향력을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데서 그 중요성도 희석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원고향인 북한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고 정착하는데서 그들이 가진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탈북자 문제

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를 이해서는 탈북자들의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들의 성향을 남녀 구성의 분포, 연령, 직업, 학력 등에서 나타나는 매혹 장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샬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 장점'(Fascination Advantages)을 사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샬리 호그셰드 2015).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불균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한 사회에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매력 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삶의 요령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것의 중요성은 인간으로서 사람(당신)만의 최고의 가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표 2>는 샬리 호그셰드가 연구한 7가지 매혹 장점을 표로 정리한 것이 매혹 장점 시스템이다. 우리가 타고난 성향을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7가지 매혹 장점은 바로, 혁신(Innovation), 열정(Passion), 힘(Power), 명성(Prestige), 신뢰(Trust), 신비(Mystique), 경계(Alert)이다. '매혹'은 강렬한 집중력을 보이는 신경상태로 일반적인 관심과 다르며, 저항할 수 없는 몰입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매혹 장점은 분명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직원으로서, 기업가로서, 혹은 리더로서 세상을 전달하는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다.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는 태생적으로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부정적 측면이 농후한데, 이런 측면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점을 부여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표 2> 49가지 캐릭터 유형

		2차 장점						
1차 장점	혁신	혁신	열정	힘	명성	신뢰	신비	경계
	혁신	무장주요자 변덕스러운, 특이한, 혼돈상태	록스타 대담한, 예술가 기질, 정통에서 벗어난	승부사 개척하는 반항하는 기업가적인	유행의 선도자 최첨단의, 엘리트적인 상상력 있는	장인 계획적, 시려 깊은, 유연한	산동가 영리한, 능숙한 시류에 부합하는	기동대원 다작하는, 빈틈없는 상상
	열정	촉매자 고정관념을 깨는 사회적 활동 부딪는	드라마 극적, 감정적, 민감한	투사 영웅적 포용적 참여하는	재주꾼 새로운 포용력 있는 감성지능이 높은	연인 보살피는, 충직적, 진실한	모의자 안목 있는, 통찰력 있는 사려 깊은	조직자 주의를 가늘어, 한시적인 능률적인
	힘	변화요원 창의적, 틀을 깨는, 자기주도적	우두머리 의욕적, 활기찬, 설득력 있는	공격자 지배적, 고압적, 독단적	마에스트로 아심찬 집중력 있는 자신반반	보호자 두드러진, 진실한, 확실한	지휘관 체계적, 강렬한, 자립적	수비자 선제적, 주의하는 약가 강한
	명성	선구자 독창적, 진취적, 진보적	감정가 통찰력 있는 기품 있는 정통한	승리자 존경받는 경쟁우위의 결과지향적	황제 오만한, 냉정한, 우월한	블루칩 클래식, 인정받는, 분야최고의	건축가 숙련된 절제하는 완성도 높은	학자 지적인, 단련된, 체계적
	신뢰	진화형 효집행은 개방적, 순응하는	진국 다가가기 쉬운,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진지형 품위 있는, 안정적, 근면한	외교관 침착함, 영리한, 유능한	원년멤버 예측가능한, 인정받는 요사부동의	앵커 보통하는 폭우치 않는 분취	상당한 사민 완을 자는 준비된 양심적
	신비	비밀병기 민첩한, 과묵하며 독립적	미묘한 손길 요령 있는 자급자족하는 주의하는	베일을 쓴 강자 현실적, 의도적 간결한	군위병 우아한, 빈틈없는, 조심스러운	현명한 올빼미 관찰력 있는 자감 있는 침착함	먹통자 몰쇠 냉정한, 내성적, 집중적	궁수 정확한, 논리정연한 실용적
경계	작곡가 전략적, 메세 조양하는 신중함	조정자 건설적, 체계적, 실용적	고수 결력 있는 자취 없는 단조적	편집장 생산적, 세밀한, 노련한	중재자 변함없는, 침착한, 체계적	탐정 명백한, 정확한, 꼼꼼한	막무가네 통제불능의, 의욕적 가다로운	

출처: (샐리 호그셰드 2015, 96).

캐릭터 유형은 캐릭터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캐릭터별 세상의 시각과 관련 형용사들을 나중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다(샐리 호그셰드 2015, 139-278). 이는 1차 장점과 2차 장점으로 교차되어 49가지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열정과 힘을 겸비하면 의욕적이고 활기찬 우두머리 캐릭터이며, 1차 장점이 신뢰이고 2차 장점이 명성이면 침착하고 영리한 외교관 캐릭터 유형인 것이다. 그리고 1차 2차로 나누어지지 않은 1차 장점끼리만 이어진 7가지 캐릭터도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특유의 장점을 활용하는 만큼, 사람마다 7가지 장점을 다르게 이용하고 다른 식으로 조합하며 사용량도 다르다. 이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동질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특정인과의 상호작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혹 장점들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것이다.

샬리 호그셰드의 매혹 장점 모델의 특징은 앞서 제시한 7가지 장점들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것이다. 캐릭터 유형은 7가지 매혹 장점을 1차 장점(세로축)과 2차 장점(가로축)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전체 49가지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람(자기)에게 해당하는 핵심 차별점만 기억하면 된다. 사람들 각각의 장점 캐릭터를 보여주며, 모든 사람이 분명한 최고의 가치를 가질 뿐이며, 옳고 그름은 없다. 각각의 캐릭터 유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더하며, 독특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자기 성향에 내장된 막강한 힘과 같은 것이다(샬리 호그셰드 2015, 39-40).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딱 들어맞는 한두 가지 장점은 따로 있다. 사람 특유의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면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마다 숨겨진 재능과 최고의 가치, 기회와 가능성 등 최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자기의 매혹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도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도 있다. 여기서 샬리 호그셰드의 7가지 캐릭터 장점을 활용, 49가지의 특징을 탈북자의 성향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점은 탈북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은 다름 아닌 신뢰, 신비, 경계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탈북자라 하더라도 다른 강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을 해온 경력 때문에 다른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 뿐이다. 허나 한국에서 탈북자의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이 현격히 좋아진다면 그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캐릭터의 장점을 기회와 욕구의 충전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 Ⅲ.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과 성향 분석

2020년 3월 통일부 자료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총계는 33,658으로, 남자가 9,402명이고 여자가 24,256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72.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김일성 체제시기(1945~1994년)에는 남자 644명, 여자 49명으로 총 693명이, 김정일 체제시기(1995~2011년)에는 남자 6,534명, 여자 15,884명으로 총 22,418명이, 김정은 체제시기(2012~현재)에는 남자 2,225명, 여자 8,327명이 각각 탈북을 하였다. 이처럼 탈북자의 국내입국의 특징은 김정일 체제시기에 가장 많이 탈북한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그중에서도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의 탈북자 입국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 체제시기인 2000년부터 수백 명이 국내입국이 시작된 이래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2,000여 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시기인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여 명대로 입국인원이 감소되었으며, 2019년도는 1,047명 입국한 상태이다. 그리고 <표 3>의 남녀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김일성 체제시기인 1989년 이전까지 7%, 1994년에도 7%에 불과했던 것이 김정일 체제시기인 1996년 23%로 급등을 보여주다가 2002년 55%를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총계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이후 6년간 매년 2,000여명의 국내입국을 유지하였으나, 그 앞선 6년을 제외하고라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500명 내외의 국내입국 현상유지를 보였다.

<표 3> 탈북자 입국현황 (~'20.03월 입국자 기준)

구분	~'89까지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명)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0	474	626	424	515	578	608	662
여(명)	43	6	6	13	30	18	58	132	289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총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비율	7%	7%	14%	23%	34%	25%	39%	42%	49%	55%	63%	67%	69%	75%	78%	78%	77%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총계
남(명)	591	795	404	369	305	251	299	188	168	202	39	9,402
여(명)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939	969	845	96	24,256
총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135	33,658
여성률	75%	71%	73%	76%	78%	80%	79%	83.3%	85.2%	80.7%	71.1%	72.1%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단, 2000년 3월은 잠정 집계임

탈북자의 탈북 원인으로는 첫째, 김일성 체제 말기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과 북한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직접적 위기위식 및 불만이 고조된 데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집권한 김정일 체제시기인 1994년 이후 북한이 10여 년간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난까지 겹치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북한주민을 민감하고 극적인 드라마 캐릭터답게 탈북의 길로 내몬 것이다. 1995년을 계기로 상당수가 의지할만한 한국행을 고수한 것이고, 2002년을 계기로 1,000명~2,000명을 상회하는 등 김정일 체제시기에 폭발적인 인원수의 유입을 가져왔다. 둘째, 탈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 '70여년'에 이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로 이어진 3대세습의 오만함, 폐쇄적 정치체제, 북핵에 의한 체제유지에, 외부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북핵 응징, 북한인권법의 제정, 동구권 국가의 민주화, 걸리지 않는 채 대량 유입되는 해외정보 등이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은 한국과 동남아 국가를 통한 정보습득과 그에 따른 북한주민의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여 개방에 순응하는 진화형 캐릭터와 민첩한 비밀병기 캐릭터처럼 탈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 내부, 외부적으로 북한정권을 옥죄는 형국과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 교차되면서 북한주민이 현명한 올빼미 캐릭터가 되어 자신감 있게 택한 유일한 통로가 탈북으로 이어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일반주민은 물론 상류층 내부에서도 사회적 일탈현상이 증가하면서 베일

을 쓴 강자 캐릭터처럼 현실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돌파구 마련이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처벌의 위협이 예상되거나 처벌당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자연히 남한 또는 제3국행의 탈북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경제악화에 기인한 암시장이거나 장마당이 발달하는 등 미약하나마 민첩한 비밀병기 캐릭터처럼 자본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상층·하층 간부는 물론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통제불능의 막무가네 캐릭터처럼 뇌물이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뇌물수수, 절도 및 강도, 부화방탕 등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는 북한주민들이 늘고 있다. 넷째, 장기간 북한주민의 탈북과 남한귀순 또는 제3국 망명은 북한과 영토경계선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이 북한과 영토접경부근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소 수교(1990. 9)와 한·중 수교(1992. 8) 등 통일 환경의 변화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이런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베리아 별목공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은 변화요원 캐릭터에 걸맞게 틀을 깨고 자기주도적으로 탈출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해외 현지(現地) 국가로 잠적해서 살거나 남한귀순 또는 제3국 망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 체제시기인 1997년 주체사상에 관한 강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직후에 베이징에서 김덕홍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업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체제시기인 2016년 7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가 탈북한 사례가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북한체제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촉매자 캐릭터와 반항하는 승부사 캐릭터를 가진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탈북 목적과 이들의 성격, 탈출상황에 대한 고려가 승부사 캐릭터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데에 있다. <표 4>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탈북방법은 59%가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 30% 정도는 자력에 의한 것이다. 탈북자가 브로커나 탈북단체에 의

해 탈북한 것과 자력으로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자력에 의한 탈북은 남북가교의 촉매자 캐릭터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으로 한국에서 정착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며, 브로커 탈북은 이미 자력 탈북자들의 소식을 듣고 변화요원 캐릭터처럼 틀을 깨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시민 캐릭터에 걸맞게 양심적이고 원칙을 지키며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일념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표 4> 탈북자들의 탈북 및 망명 생각 여부 (단위: %)

구분	탈북 및 망명 생각 여부			
	브로커를 통해	자력으로	남한 탈북단체 도움	기타
탈북방법	58.6	29.8	9.5	0.7
미국 망명 생각 여부	매우 많다	어느 정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35.9	34.6	13.2	16.3
북한 귀환 생각 여부	전혀 없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한두 번 한다
	44.7	6.8	16.3	31.5

출처: (오효림 2006, 136).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입국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중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대가 57.4%를 차지해 과반수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로 11.3%의 10대와 5.9%의 50대가 자리하고 있다. 그와 달리 상대적으로 60대 이상(3.9%)의 고령층이 청년 혹은 중년층보다 인구수에서 열세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및 중년층(20세~39세까지)의 탈북자들이 현명한 올빼미 캐릭터처럼 관찰력과 자신감 갖고 한국에서 배움의 길로부터 취업의 단계로 접어들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을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살아남기를 목표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분야최고가 되고픈 블루칩 캐릭터를 지닌 청년이고 중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체제에서 비인간다운 삶을 살아오면서 극한 생사기로운 내몬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선구자 캐릭터를 지녔다.

<표 5> 입국 시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현황 ('19.09월 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46	1,662	2,566	2,119	1,356	548	334	9,231
여	636	2,065	6,845	7,403	4,467	1,384	980	23,780
합계	1,282	3,727	9,411	9,522	5,823	1,932	1,314	33,011
비율	3.9%	11.3%	28.5%	28.9%	17.6%	5.9%	3.9%	100%

출처: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표 6>의 2000년대 초반 탈북자의 재북 지역별 입국 현황에서 전체 통계수치는 함북이 18,604명으로 전체 인원 30,215명의 62%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표 7>의 경우 전체인원 중 양강이 14.5%인 4,396명, 함남이 9%인 2,669명, 평남이 3.4%인 1,019명 순이며, 평양이 2.3%인 693명이다.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은 조심스럽고 빈틈없는 근위병 캐릭터답게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잘사는 지역인 평양보다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북의 두만강 주변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이전의 자료인 <표 6>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양이 6년치 합계가 144명인데 반해 함북의 경우 5,957명으로 <표 7>에서처럼 2.3% 대 61.6%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2000년대 초반 탈북자의 재북 지역별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평양	남포	개성	평남	평북	자강	양강
01년	5	6	0	16	27	7	23
02년	27	9	7	37	58	15	36
03년	21	4	2	47	37	8	25
04년	42	13	8	41	37	2	55
05년	20	7	2	46	35	5	44
06년	29	6	1	80	25	13	105
합계	144	45	20	267	219	40	288
구분	황남	황북	함남	함북	강원	기타	총계
01년	7	10	83	380	15	4	583
02년	17	22	121	755	26	9	1139
03년	18	13	149	922	24	11	1281
04년	20	16	206	1413	32	9	1894
05년	16	21	150	1007	25	5	1383
06년	16	19	195	1480	42	8	2019
합계	94	101	904	5,957	164	46	8,254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팀

<표 7> 탈북자의 재북 지역별 입국현황 ('17.03월 말, 단위: 명, %)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함남	황북	개성	기타	계
남	25	64	126	66	49	38	38	73	474	20	18	44	88	888
여	32	73	310	141	50	42	35	1916	1380	81	25	28	84	2,407
합계	57	137	436	207	109	80	68	2089	1864	101	43	72	167	3295
비율	19%	04%	14%	07%	3%	27%	23%	88%	61%	15%	14%	02%	06%	100%

출처: 통일부

<표 8>은 국내 입국 탈북자의 재북 학력별 현황이다. 대부분 전체인원 중 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력은 중학교(고등중)이다. 그 다음 차순으로는 전문대(10.2%), 대학 이상(7%), 인민학교(7%), 무학(3%) 출신들이다. 중학교(고등중) 출신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남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학력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문대(75.5%), 인민학교(65%), 대학 이상(52%) 순이다.

<표 8> 탈북자의 재북 학력별 입국 현황 (~'19.09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초학교	중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기타 (불상)	계
남	417	135	784	5,596	822	1,066	357	54	9,231
여	400	209	1,452	17,304	2,544	1,172	504	195	23,780
합계	817	344	2,236	22,900	3,366	2,238	861	249	33,011
비율	2.5%	1.0%	6.8%	69.4%	10.2%	6.8%	2.6%	0.7%	100%

출처: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표 9>는 김정일 체제시기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00년대 초반기 6년간 탈북자의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이다. 북한에서 탈북자의 직업 중 50%이상이 무직부양으로 장사, 개인농사, 아동, 학생 등 양심적이고 원칙을 지켜온 캐릭터답게 선량한 시민들을 포함한다. 그 다음이 노동자로 순수한 노동자와 농장원, 돌격대원 등이 빈틈없고 조심스러운 근위병 캐릭터에 해당된다. 그 외 전문직(의사, 교원, 통역원 등)이나 관리직(당 간부, 초급지도원 등), 봉사분야(사무원, 요리사, 미용사, 체신소 교환원, 유치원 보육원 등)로 구분된다. <표 10>은 재북 직업별을

20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3호 (2020)

남녀로 구분한 것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무직부양은 아직 꽃피우지 못했지만 삶과 노동에 요령 있는 미묘한 손길 캐릭터가 될 수 있듯이 여성이 남녀입국 대비 79% : 21%로 절대적으로 많은 강점을 지니며, 노동자 출신 여성은 남자에 대비해 69%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은 관리직과 군인 출신 비율은 각각 25%와 17%로 남성에게 비해 열세하다. 반면 여성은 노동자 및 무직부양은 물론 봉사분야(94%), 예술·체육(72%), 전문직(70%)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것처럼 분야 최고 속성단계 블루칩 캐릭터를 가진 직업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2000년대 초반기 탈북자의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 (단위: 명)

구분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봉사분야	군인	무직부양	계
01년	22	26	16	277	43	7	192	583
02년	32	45	18	503	72	11	458	1,139
03년	32	21	13	471	52	8	684	1,281
04년	37	24	15	732	46	11	1,029	1,894
05년	5	24	23	533	25	12	761	1,383
06년	34	32	8	726	72	9	1,138	2,019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팀

\* 관리직: 당 간부, 초급지도원 등, \* 전문직: 의사, 교원, 통역원 등  
 \* 예술체육: 배우, 작가, 선동대원, 체육선수 등, \* 노동자: 노동자, 농장원, 돌격대원 등.  
 \* 봉사분야: 사무원, 요리사, 미용사, 체신소 교환원, 유치원 보육원 등, \* 무직·부양: 무직·부양, 장사·개인농사, 이동, 학생 등 기타 포함

<표 10> 탈북자의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 ('19.09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바깥(이동)	계
남	408	690	4,054	3,193	85	81	215	505	9,231
여	138	143	8,926	11,872	1,330	213	506	602	23,780
합계(명)	546	833	12,980	15,065	1,465	294	721	1,107	33,011
비율	1.7%	2.5%	32.9%	45.8%	4.4%	0.9%	2.2%	3.3%	100%

출처: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IV. 시기별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과정과 성향 분석

탈북자의 명칭은 시대별 차이와 특성을 가지나 대체적으로 다양한 용어로 불려 온 점이 매우 이채롭다. 첫째, 해방이후 분단과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이승만 정부시기에는 북한 이주민을 ‘실향민’(失鄉民)이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정부가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지 않은 단계이다. 당시 ‘실향민’은 고향을 떠난 후 고향에 자유로이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며, 난민도 포함된다. 당시 6.25 전쟁으로 흩어진 실향민 이산가족이 남북한을 통틀어 1천만 명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시기까지인 1962년부터 1997년 이전시기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귀순자’, ‘귀순용사’, ‘북한 귀순동포’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시기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에 의해 제도화된 명칭이 ‘귀순자’ ‘귀순용사’라는 용어인데, 이는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 것이다. 보통 6.25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냉전기)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온 사람 ‘귀순용사’로 지칭한 것이다. 셋째, 김영삼 정부시기인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이 제정되면서 귀순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넷째, 김영삼 정부시기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을 제정하여 기존의 ‘귀순’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주민이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탈북자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즉 귀순자,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으로 명칭이 혼선을 가져온 것은 정부가 탈북자를 공격하는 지배자 혹은 공격자 캐릭터 입장에서 취급해온 데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용어의 설정을 위해서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상황과 출신 성분 등이 다르고 탈출 목적이 다를진대, 보다 탈북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위치에서 선구자 캐릭터같이 진취적이고 객관적이며 포용적인 통일민 용어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탈북자의 정체성을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자로 보면 변화요원 캐릭터처럼 분단을 허물고 창의적인 통일일꾼으로 남북문제 및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정부주의자 캐릭터처럼 변덕스럽게 탈북자를 이방인, 변방인, 2등 국민, 다문화인, 불신자,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 용어 혼란을 초래해 왔는데, 이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없이는 그들이 민주시민으로 길러지지 않는다(정주신 2011, 144-147). 따라서 정부는 보호자 캐릭터에 걸맞게 진실되게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과 용어 선정도 소통하고 공감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용어의 선정을 탈북자의 성격과 탈출 상황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당국이 지배자 입장에서 공격자 캐릭터를 갖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라 본다. 여하튼 탈북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해온 것은 아직도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혼선과 실패는 탈북자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살더라도 떳떳한 국민이 되기 힘들고 이들이 탈북 낙인찍혀 꼬리표를 떼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또한 한국민이 탈북자를 대하는 불신에 대한 고리도 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탈출인 고정관념을 깨는 촉매자 캐릭터 역할도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탈북자 명칭에 대한 딜레마는 탈북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시기인 1997~1999년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인 1999~2004년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 지원 강화,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4~2006년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

부시기인 2006~2008년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 보호기간 확대, 이명박 정부시기인 2009년~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이명박 정부시기인 2010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3~2014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을 해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기별 탈북자 성향을 역대 정부가 그들에게 달아준 꼬리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탈북자들이 쉼리 호그셰드가 말하는 매력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탈북자의 성향을 재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과시하지 않고 독립적인 비밀병기 캐릭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착지원금만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생고 문제 등 삶에 찌들어 탈북해온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 사선을 뚫고 넘어온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현명한 올빼미가 되고자 큰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득권을 지닌 한국인들의 지배적이고 고압적인 공격자 캐릭터에 막혀 한국인들과의 소통 문제로 심리적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탈북자들은 제3의 탈북으로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영국 등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제3장의 입국 과정에서 탈북자 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결국 탈북자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활기를 복돋는 촉매자 캐릭터처럼 한국에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갈 것이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표 3>에서 탈북자 중 남자가 9,402명이고 여자가 24,256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7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체 인원 중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대가 57.4%를 차지한 것만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청년중년층의 탈북자들은 적게는 20년 내지 30년을, 많게는 50년 이상을 살다운 경

24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3호 (2020)

우이다. 이 연령대와 여성이 주류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착과정과 그 이후 국민으로 살아가기에는 취업, 즉 양심적이고 준비된 선량한 시민 캐릭터답게 일자리를 통한 수입원이 생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는 탈북자가 한국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력 있고 감성지능이 높은 재주꾼 캐릭터에 적합한 일자리가 필요한 점에서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과정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2010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출처: 통일부, 『통일백서』(2010).

<그림 2> 2017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편 방향

< 2017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편 방향 >

<p>개인별 수준·특성 반영 및 맞춤형 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 역량·의지 기준 성인반 분반(2주) 운영</li> <li>○ 컴퓨터 및 언어 수준을 고려한 분반 수업 도입</li> </ul>
<p>장기적 관점 인생설계 등 자립·자활 역량 배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생애설계(Life-Plan)' 과정' 신설</li> <li>○ 거주지 취업보호담당관·상담사 연계 지원</li> </ul>
<p>국민·선배 탈북민과 교류 등 사회통합형 교육 점진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확대</li> <li>○ 선배 탈북민·일반 국민 등과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li> </ul>
<p>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험·참여형 교육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체험 교육기관 공모제로 선정</li> <li>○ 외부현장학습 전면 체험형으로 전환(강의식 지양)</li> </ul>

출처: 통일부

첫째,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그림 1> 2010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과 <그림 2> 2017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편 방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년 7월 개원한 하나원 본원은 경기 안성에 있고, 2012년 12월에 개원한 제2하나원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다. 안성 하나원이 유일했을 때는 탈북 남녀들이 기숙하면서 총 12주 420시간(2010년)→ 12주 400시간(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회적 교육을 받았으며, 제2하나원 개원 후로는 여성과 청소년 탈북민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김정일 체제시기인 2002년부터 1천여 명에서 2천여 명 내외가 꾸준히 입국하면서 제2하나원이 남성 탈북민 5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져 남성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13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이후 입국 탈북민 수가 줄어들고 여성의 비율이 늘면서 현재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원 교육과정을 마친 뒤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남녀탈북민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이후 정부로부터 정착금 및 주거, 취업 및 사회복지관련 지원을 받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절차를 받는다. 탈북자들은 국내이송 후 합동심문 조사를 거쳐 사회적착의 일환으로 하나원에서 북한과 다른 한국에 와서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캐릭터 드라마처럼 감정적이고 민감한 사회적응과정을 밟게 된다. 우선 탈북자가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인 193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독재자이자 공격자 캐릭터처럼 고압적인 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억눌린 바가 컸기 때문에 이를 희석시키는 캐릭터 기동대원처럼 빈틈없고 성실한 강점계발이 있어야 한다. 탈북자의 거주지 보호로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 의료 급여),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제: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등이다.<sup>2)</sup> 다만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49가지 캐릭터 유형, 즉 촉매자 캐릭터처럼 장점 강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활기를 북돋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정착금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데, 주로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이 주류를 이룬다(<표 13> 참조). 이중 장려금은 취업, 직업과 관련된 부가사항이고, 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와 관련된 사항이다. 탈북자의 취업은 직업 훈련과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담당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공격자 캐릭터처럼 정부의 지배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에서는 실제 취업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과 직업훈련은 포용력 있고 감성능력이 높은 재주꾼 캐릭터처럼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연금특례가 있으나,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묶이게 되는 형국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실생활 거주지인 지역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원의 64%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36%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표 11> 참조).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볼 때, 탈북자의 국내 거주자는 총 28,125명으로 남자 7,575명(27%), 여자 20,577명(73%)이다. 그 중에서 수도권은 경기(30%), 서울(25%), 인천(9%) 순이다. 반면 지방에 거주자 중에서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1%), 울산(1.9%), 전북(1.9%), 대전(2%) 순이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간에 탈북자 거주 현황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캐릭터 탐정처럼 꼼꼼하게 혹은 베일을 쓴 강자처럼 현실적이며 의도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에 탈북자들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표 11> 탈북자의 입국 후 지역별 거주 현황 (17.03월 말 기준, 단위: 명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300	2,141	753	280	247	244	155	210	285
여	4,643	6,250	1,901	743	846	808	540	911	1,037
합계	6,943	8,391	2,654	1,023	1,093	1,052	695	1,121	1,322
비율	24.6%	29.8%	9.4%	3.6%	3.9%	3.7%	2.5%	4.0%	4.7%

2) <http://unikoreablog.tistory.com/333>(검색일: 2017/02/18).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7	172	143	155	121	158	64	7,575
여	485	528	445	454	410	369	207	20,577
합계	632	700	588	609	531	527	271	28,152
비율	2.2%	2.5%	2.1%	2.2%	1.9%	1.9%	1.0%	100%

<표 12>는 탈북자들의 사회적 적응도를 생활만족도에서 보여준 것이다. 50%에 이르는 과반수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측면이고, 32%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었다. 그 어려움은 다름 아닌 통제불능이고 까다로운 소통과 공감의 어려운 막무가네식 캐릭터처럼 돈 벌이의 어려움과 탈북자의 차별을 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탈북해온 탈북자와 한국인 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정부가 차이를 좁히는데 정책을 우선시해야 하며, 탈북민을 차별하는 한국인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12> 탈북자들의 사회적 적응도 (단위: %)

구 분	항목별 만족 혹은 불만족 요인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현재 생활 만족도	17.3	50.8	25.4	6.1		
적응 시 어려운 점	돈벌이	탈북자 차별	문화적 이질감	타인과 경쟁분위기	언어	인간 관계
	40.3	47.5	25.1	12.2	40.3	16.6
남한사람들의 차별여부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0	31.5	31.3	15.3		

출처: (오효림 2006, 132).

<표 13> 탈북자의 정착지원제도 일람('17.03월말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입주에지급)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6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 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50만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 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전국 약 530명)
보호담 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30명), 취업보호담당관(57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출처: 통일부

<표 14> 탈북자의 정착지원제도('20.06월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 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입주에지급)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14년 11월 29일 이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65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 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4명), 취업보호담당관(65명), 신변보호담당관(약 900명)

출처: 통일부

셋째, 탈북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많지 않은 정착금과 취업 관련 지원금 및 알선을 받게 된다. 탈북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탈북자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를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받는다. 생계급여의 경우, 탈북자가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되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탈북자가 급여혜택을 보장받으려면 캐릭터 지휘관과 선구자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독창적이고 자립적 발상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생계급여 수급률은 2008년~2010년까지 평균 53% 정도를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수급률이 낮아져 최근 2014년~2016년의 수급률은 하향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 캐릭터 무정부주의자처럼 번덕스러움이 많고 혼돈상태에서 낙폭이 큰 것에 대비하여 원년멤버 캐릭터처럼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률과 일맥상통한 것은 바로 초.중.고 중단율이다(<표 15> 참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6년에 생계급여 수급률이 가감하는 것과 더불어 초.중.고 중단율도 비례해서 떨어짐은 정부의 무대응 복지라는 관점에서 캐릭터 황제나 먹통자물쇠처럼 냉정하고 오만한 발상과 다르지 않다. 한편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은 감소 추세지만 일부 탈북청소년은 학력 결손,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 적에 곤란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18년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로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학교 수업 따라가기(21.3%), 친구 사귀기(6.6%), 남한 문화 적응(3.0%) 순이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책의 내용 이해 곤란

30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3호 (2020)

(13.6%), 숙제나 과제 어려움(10.8%), 선생님 교육 내용 어려움(8.1%) 순이다.

<표 15> 탈북자의 국내 정착 현황 (단위 :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생계급여 수급률	54.8	54.9	51.3	46.7	40.8	35	32.3	25.3	24.4
초·중·고 중단율	10.8	6.1	4.9	4.7	3.3	3.46	2.5	2.2	2.1

출처: 통일부 \*중단율: 교육부 자료

<표 16>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업중단률 (단위: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일반학생
학업중단률	4.9	4.7	3.3	3.5	2.5	2.2	2.1	2.0	2.5	0.9('17)

출처: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표 17> 탈북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만원)

구분	'15년 탈북민	'16년 탈북민	'17년 탈북민	'18년 탈북민	일반국민
경제활동참가율	59.4	57.9	61.2	64.8	63.4('18)
고용률	54.6	55.0	56.9	60.4	60.9('18)
실업률	4.8	5.1	7.0	6.9	4.0('18)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54.6	162.9	178.7	189.9	255.8('18)
생계급여 수급률 <sup>1)</sup>	25.3	24.4	24.4	23.8	3.4('18)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15~'18)

1)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반국민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 통계는 발표하지 않은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기재(비교시 유의)

넷째, 탈북자의 경제활동을 보면,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의 참가율은 다소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탈북자가 중재자 캐릭터처럼 체계적이고 자립적 역할을 할수록 삶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6년~2010년에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1년~2016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전시기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탈북자의 고용률도 2012년을 임계점으로 볼 때 그 이전 시기인 2008년~2011년에는 다소 둔화된 양상이었으나, 2012년~2016년에는 계속 향상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탈북자의 고용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진 것도 탈북자의 경제활동 지표가 좋아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캐릭터 성향은 현명한 율 빼미처럼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마에스트로처럼 야심차고 자신만만한 노력과 대응을 동반할 필요성이 있다.

<표 18> 탈북자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경제활동 참가율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57.9
고용률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55.0
실업률	9.5	13.7	9.2	12.1	7.5	9.7	6.2	4.8	5.1

출처: 통일부

다섯째, <표 19>는 탈북자 특례대상자를 근로능력 탈북자와 근로 무능력 탈북자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와 특례적용 소득을 2015년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근로능력 탈북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의 경우 2인보다 43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2인 이상 7인까지는 대략 30만 원 정도 특례보상이 주어지고 있다. 반면 근로 무능력 탈북자의 경우, 특례적용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2인보다 30만원 차이를 보이나, 나머지 2인~7인은 앞서 근로능력 탈북자의 인원수를 하나씩 줄인 수치는 막무가네 캐릭터처럼 통제불능으로 치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2~7인까지의 보장기준은 대략 30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근로 능력 탈북자의 경우 근위병 캐릭터처럼 빈틈없이 혁신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근로 무능력 탈북자의 경우 투사

캐릭터처럼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데 이래야만 탈북자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19> 2015년도 탈북자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보장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탈북자	최저생계비 기준	617,281	1,051,048	1,339,688	1,688,329	1,976,970	2,265,610	2,594,251
근로 무능력 탈북자	특례적용 소득 인정액 기준	1,051,048	1,339,688	1,688,329	1,976,970	2,265,610	2,594,251	2,088,361
현금급여기준		492,288	850,140	1,092,784	1,349,428	1,599,072	1,846,716	2,088,361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일 증가시마다 가산

여섯째, 정부는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탈북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탈북자의 경우 고용이라는 것이 품위 있고 진지한 진지형 캐릭터처럼 자신에 대한 인내이며 충직하고 진실한 인간으로 남아야 하는 까닭이다. <표 20>은 실제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국의 중소기업이 탈북자를 고용했을 때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 현황이다. 2012년이나 2013년은 2011년보다 업체 수 1천여 개, 종업원 수 5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고용지원금 지급액은 약 20여억 원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탈북자 고용 촉진을 위해 비슷한 금액을 사업주에게도 주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탈북자를 서류상으로만 고용해 장려금을 챙기고, 탈북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도 돈을 버는 형국이다. 이 점에서 고용주는 신뢰와 혁신이 필요하며, 촉매자 캐릭터처럼 활기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사업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탈북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탈북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

우가 극히 드물다(서울신문, 2015/10/08).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자립적인 지휘관 캐릭터처럼 탈북자 고용에 있어 원칙을 지키고 양심적인 신뢰로 탈북자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탈북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은 서비스업이 39.6%, 제조업이 3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0>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업체수	1,717	2,915	2,824
인원	3,452	3,976	4,206
지급액	13,132	15,335	15,742

출처: 통일부

## V. 결론

2017년 초에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탈북자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제 2020년 초 탈북자 3만3천여 명 시대에 탈북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과거처럼 탈북자들의 지원보다는 자활에 힘써야 하고, 그들이 통일의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북자 문제는 더욱 딜레마에 빠지고 명백하게 더 나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을 수용과 정착금지원식의 땀질보다는 그들의 성향을 찾고 매력 장점을 찾는 일일 것이다. 한국 내 입국 탈북자 3만3천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숫자가 30만 명, 3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북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난 70년간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꾀했다는 데서 남북 간의 장막(휴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만큼 탈북자들이 통일을 가져오는 출발점 이면서 통일 후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탈북자들이 한국행이 택했다는 점은 향후 통일과정의 역군이 될 수 있는 매력 장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탈북자들이 한국의 입국 및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시대별 탈북자 성향을 가늠하는 주제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는 한국에서의 올바른 정착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매혹 장점 모델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동시에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이에는 켈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 장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즉 ①혁신-②열정-③힘-④명성-⑤신뢰-⑥신비-⑦경계 순(順)으로 1차 장점(세로축)과 2차 장점(가로축) 간에 사람들마다의 특유 장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서 조합하고 교차시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타나는 49가지 캐릭터(성격)를 통해 시기별 탈북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기별 탈북자의 성향 분석은 켈리 호그셰드가 제시한 7가지 매혹 장점 모델 순(順)이 아닌, 오히려 ⑦경계-⑥신비-⑤신뢰 등 역순(逆順)으로 적용해야 하는 모호함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한국의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은 경계 장점 모델 상태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 하는 고난의 과정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북한체제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 입국자의 전체 숫자,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 재북 지역별 입국, 재북 학력별 입국, 재북 직업별 입국 등을 살펴보았다. 자력 탈북인 경우가 2000년대 이전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근 60%가 브로커 탈북이었듯이, 북한체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이 새로운 한국으로의 입국 그 자체는 남한체제에 걸맞게 익숙해지기까지 경계의 대상이었다. 주로 탈북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시기에 2천여 명 내외의 광폭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장기간의 자연재해 및 사

회기강 해이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57%가 20~30대 연령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들 탈북자들은 경계와 신비에서 신뢰를 얻고 한국에의 적응이 빠를 수 있는 매혹 장점일 수 있다. 이들은 학력이 중학교(고등중) 출신이 70%대여서 한국사회 참여도 상대적으로 매혹 장점일 수 있다.

둘째는 시기별 탈북자들의 국내 초기 정착과정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국내 거주지별 분포, 사회적응도,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 내외의 탈북자 입국은 한국정부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만큼, 이들에 붙여지는 명칭도 다양하게 불려온 점은 탈북자들의 성향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혼동되어 왔듯이 탈북자들이 초기의 정착과정은 제도화가 안 된 그 자체였다. 탈북자의 국내이송과 임시보호조치, 하나원에서 12주 400시간의 한국사회 적응교육, 거주지 전입과 5년의 거주지 보호, 그리고 민간참여에 의한 지역적응센터 등 초기 정착과정은 일률적으로 한국식으로 동화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 향후 탈북자들에게 저마다 매혹 장점을 찾아 사회화시키는 요인을 찾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기서는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매혹 장점 모델을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으로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복지 지원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제는 통일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통일준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한국에 온 탈북자가 잘 정착하고 신바람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탈북자를 친근한 이웃으로 대하고 각 기업체에서 탈북자를 1~5인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만 해도 일자리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 귀순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등 혼란스럽고 다양한 명

칭을 번갈아 사용해 왔지만 실로 탈북자들이 선호하는 명칭은 아직도 없는 현실이다. 현재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탈북자들이 한국의 국민으로 의무와 권리를 다함에도 그들은 북한주민이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은 통일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고 탈북자도 통일을 원하므로 통칭 통일주민으로 호칭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3)</sup> 통일주민이라 칭한다면, 탈북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어 강점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본다.

셋째, 어느 국가에서나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그들만의 이민촌을 건립하는 것도 이주민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차이나타운’ ‘한인촌’ 등의 동네를 형성하듯이, 남한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하나원이 있는 안성 근처 혹은 임진각이 있는 파주지역 혹은 강원도 화천이나 철원 지역에 ‘새터민 촌’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이 ‘새터민 촌’ 조성은 그들의 문화를 위해서도 남한정착의 사회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정주신 2015, 59-60). 아울러 ‘새터민 촌’에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시행되 북한의 근로자를 데려오는 방안과 더불어 국내 탈북자를 이 산업체에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그동안 정부가 해온 공적부조에 의한 탈북자 구호방식은 지양하되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자활지원대책과 동화(同化) 프로그램 개발로 나서야 할 때이다. 탈북자를 이방인 취급하면 결국 통일도 어렵기에, 이제는 탈북자들을 껴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탈북자 지원방향도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sup>4)</sup>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취학, 각종 사회 활동에서 차별받지

3) <http://blog.daum.net/jjsyes>(검색일: 2017/04/15).

4) <http://blog.daum.net/pkc46/37>(검색일: 2017/05/10).

않도록 하는 '차별 방지법' 제정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 탈북자 취업 지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탈북인들에게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만회하는 길이다. 탈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보호 중심의 탈북자 정책에서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경. 2014.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탈냉전과 대량 탈북시대에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위치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학연구. 10(1).
- 오원환. 2016. “탈북자 정체성의 정치학 :종편에서의 ‘탈북미녀’의 등장과 ‘탈북자’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0(3), pp.5~41.
- 진미정. 2008.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1), 139~157.
- 민성길.전우택.김동기.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5(3), 269~275.
- 김용현. 2005.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동향과 전망. (65), 323~340.
- 조용관. 2004.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1(57), 217~240.
- 전우택.홍창형.엄진섭, 2003. “탈북자들을 통하여 본 북한주민 의식 조사.” 신경정신의학. 42(5).
- 선우현. 2015. “(남북 및) 남남 갈등의 또 하나의 진원지로서 탈북자 집단: 조작적 대상으로서 탈북자 집단을 바라보는 정치 공학적 시선과 관련하여.” 동서철학연구. (78), 23~44.
- 최윤형.김수연. 2013.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187~219.
- 김윤영. 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4(2), 289~325.
- 이재창.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3), 41~66.
- 김주삼. 2017.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한국과 국제사회』제1권 창간호.
- 박상용. 2003. “중국 내 탈북자 현황.정책 및 전망.” 『새로운 차원에 접어

드는 북한 난민문제의 해결과 접근』.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샬리 호그셰드. 2015.『당신을 보는 세상의 관점』. 서울: 티핑포인트  
 정주신, 2015. 『탈북자문제의 인식1』. 대전: 프리마북스.  
 오효림. 2006. “탈북자 300명 특별 리서치.” 『월간중앙』. (8월).  
 통일부. 2010. 『통일백서』. 통일부. 2007. 『통일백서』.  
 통일부. 2020. 『통일백서』. 서울신문, 2015/10/08.  
<http://unikoreablog.tistory.com/333>(검색일: 2017/02/18).  
<http://blog.daum.net/jjsyes>(검색일: 2017/04/15).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검색일:  
 2017/05/10).  
<http://blog.daum.net/pkc46/37>(검색일: 2017/05/10).

투고일 : 2020년 5월 13일 . 심사일 : 2020년 5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27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로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한국의 정당정치1: 군부 체제 집권당』,『탈북자 문제의 인식 1, 2, 3』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Tendencies by Period :**  
Focused on Arrival and Initial Settlement Process

Chung, Joo-Shin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d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tendencies by period, focusing on the initial settlement process at the time of entry into North Korea, and applied seven fascinating merit models of Sally Hogshed. To this end, we analyzed how North Korean refugees who escaped North Korea entered each North Korean regime by time, and what kind of propensity they had during the initial settlement with the arrival of South Korea, the settlement. The first was to analyze the tenden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enter the North Korean regime. Mainly,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entry by age group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entry into North Korean regions, the entry into North Korean educational backgrounds, and the entry into North Korean occupations were examined. Second, we analyzed the tenden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Korea in the early stages. Mainly, Hanawo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government's settlement support system, distribution by domestic residence, social adaptation, and economic activity were examined.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ed to present a policy proposal that could not only utilize the fascination advantage model to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 propensity by period, but also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n the future.

**Keywords** : entry into South Korea, initial settlement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tendency, attractive advantage model, Hanawon